

CR 2010-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2010. 6

동향분석실

CR 2010-02

CEO
Report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2010. 6

동향분석실

총 괄
이진면(연구위원)

경제 · 금융

세계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실물경제 김대환(부연구위원)
 최 원(선임연구원)
 김세중(선임연구원)
금융시장 김대환(부연구위원)
 최이섭(연구원)

보 험 산 업

보험총괄 김대환(부연구위원)
 이경희(전문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선임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선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요 약	1
I. 전망 배경	12
II. 실물경제 · 금융 환경	14
1. 세계경제	14
2. 국내 실물경제	18
3. 국내 금융시장	24
III.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29
1. 주요지표	29
2. 생명보험	31
3. 손해보험	42
IV. 보험회사 경영과제	54
1. 재무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	54
2. 신규 영역 투자 및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전략 마련 ...	56
3.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57
<부 록> 경제 및 보험 관련 주요지표 전망치	61

<요 약>

1. 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경기부양 정책 및 글로벌 공조의 효과 가시화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흥개도국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회복세는 가속될 전망이다.
-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이 2009년 0.6%에서 2010년에는 4.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선진국경제는 유럽의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의 회복세가 속으로 2010년에 2.3%의 증가세로 전환되고, 신흥개도국은 중국, 인도 등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6.3%의 성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증가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2010년에 각각 29.5%, 13.9% 상승할 것이나 상당부분 기저효과로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는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나, 유럽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음.
- 남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졌으나, 글로벌 유동성과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별 영향이 없는 상황
-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안정화체제 구축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조기 진정이 예상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위한 유럽 각국의 민간 및 정부의 부채조정은 유럽의 경기 회복세를 지연시킬 것임.

<국내 실물경제>

- 2010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5.3%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 국내경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세계경제 회복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실질GDP가 작년 4/4분기 6.1%, 금년 1/4분기 7.8%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시현
- 향후 소득 증가, 금융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민간소비 개선(4.5%), 생산설비 확대 등 설비투자가 회복(14.6%)되어 내수가 크게 개선될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 가속, 특히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11.8% 증가하며, 수입도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인해 15.2%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전망
- 경기 회복의 가속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물가는 수요압력과 비용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고용사정은 수출 및 내수경기 호조로 개선될 것이나 제조업의 낮은 고용유발, 정부의 일자리창출 계획 축소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2009년 58.6%, 3.6%에서 2010년 58.9%, 3.5%로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의 가속, 유동성 확대에 의한 수요 증가요인과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비용상승요인이 작용하면서 3.1% 상승할 전망
- 향후 국제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전망이다.

- 국제수지는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불황형 흑자구조를 탈피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는 추세
- 2010년 상품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1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입은 내수 및 수출 증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29.1% 증가해 수출증가를 크게 상회할 전망
- 이에 상품수지는 2009년의 60% 수준인 313억 달러, 경상수지도 경기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의 악화로 작년 1/4분기 수준인 108억 달러로 대폭 축소될 전망

<국내 금융시장>

- 정책적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금리는 경기회복의 가속,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됨.
- 작년 2월부터 기준금리가 2.0%로 유지되고 단기 시중금리도 2%대에서 안정되는 한편, 장단기 금리차, 신용스프레드 등이 축소되는 등 신용위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
-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 경기회복의 가속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2010년 5월말 현재 5.4%와 4.3%인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는 하반기에 각각 5.7%와 4.7%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연평균 5.5%와 4.5%에 이를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인해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 2009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남북관계의 급랭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으나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누적에 따른 외환공급 능력의 개선, 중국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 등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2010년에는 연평균 1,095원/달러로 낮아질 전망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

	2007	2008	2009	2010(F)
실질GDP	5.1	2.3	0.2	5.3
(명목GDP)	7.3	5.3	3.6	8.1
민간소비	5.1	1.3	0.2	4.5
건설투자	1.4	-2.8	4.4	1.4
설비투자	9.3	-1.0	-9.1	14.6
재화수출	11.9	4.6	0.0	11.8
재화수입	10.9	4.5	-7.9	15.2
실업률	3.2	3.2	3.6	3.5
(고용률)	59.8	59.5	58.6	58.9
소비자물가	2.5	4.6	2.8	3.1
경상수지(억달러)	58.8	-57.8	426.7	108.1
상품수지(억달러)	281.7	56.7	561.3	312.9
상품수출(억달러)	3,790.5	4,329.2	3,735.8	4,410.3
(%)	(14.2)	(14.2)	(-13.7)	(18.1)
상품수입(억달러)	3,508.8	4,272.5	3,174.6	4,097.4
(%)	(15.4)	(21.8)	(-25.7)	(29.1)
회사채(AA-)	5.7	7.0	5.8	5.5 [하반기 5.7]
국고채(3년)	5.2	5.3	4.0	4.5 [하반기 4.7]
원/달러(연평균)	929.2	1,099.5	1,276.4	1,094.8 [하반기 1,062.5]

2.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주요 지표>

-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한 보험산업은 성장세의 지속이 예상되나 일부종목의 초과성장에 대한 부담으로 수입보험료 성장은 FY2009 8.9%에서 FY2010 8.1%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경상GDP^{*})는 수입보험료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FY2009, FY2010 각각 11.1%, 11.2%로 소폭 증가할 전망
 - * 보험침투도의 경상GDP는 FY기준이며, FY2010 경상GDP는 6.8% 성장 전망
- 총자산은 수입보험료의 꾸준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으로 인한 투자환경 호전으로 FY2010 11.1%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

<생명보험>

- FY2010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연금 및 생사혼합보험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FY2009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연금과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회복되고 해지율이 진정되면서 4.9%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
- FY2010에는 금리 및 세제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생사혼합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금융시장 안정으로 변액보험 수요도 회복되면서 성장률은 FY2009 수준인 4.8%를 나타낼 전망
- 종목별로는 우선 사망보험이 종신 및 통합형보험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질병보험 부문에서의 감소 추이가 지속되어 전체적으로 2.9% 성장하는데 그칠 전망

- 보험회사들이 판매에 소극적인 질병보험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나 종신·CI(치명적질병보장)·통합보험 등 사망담보보험은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생존보험은 FY2009 하반기 초과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하겠으나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요의 지속으로 6.4% 성장에 이를 전망이다.
 - 2009년 10~12월 연금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2009년 7~9월 29.7%, 10~12월 107.2%로 높아졌는데 이중 상당수는 일시납보험료에 의한 것이어서 FY2010에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FY2010 생사혼합보험은 공시이율에 대한 상한 설정, 전년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사·방카슈랑스 전문보험사 및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전략, 타 저축성상품 대비 금리 및 세계 우위 등에 힘입어 11.4%의 고성장이 기대됨.
 - 은행의 저축성상품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서 생사혼합보험이 판매됨에 따라 당분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변액보험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확신이 확대될 경우 수요가 차츰 회복되어 변액연금보험을 중심으로 6.9%의 성장을 예상
 - 변액유니버설보험도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신규 가입이 증대되고 해지로 인한 계속보험료 감소 현상도 진정될 것임.
-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2010년이 제도 전환(퇴직보험→퇴직연금)의 종료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년에 높은 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일시적 요인의 소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3.5% 축소될 전망

- 전년에는 손비 처리 가능한 사내예치금이 퇴직금 추계액의 35%에서 30%로 축소되고, 대기업 계열사의 퇴직연금 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39% 성장하였으나 이들 효과가 상당 부분 소진되는 FY2010에는 수입보험료 규모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

<손해보험>

- FY2010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두 자릿 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 감소로 성장률이 FY2009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FY200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성 손해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자동차보험의 회복세에 힘입어 16.7%의 견조한 성장을 시현
 - FY2010에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이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13.9% 성장할 전망
- FY2010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6.8%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이전에 가입하려는 대기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FY2009에는 22.3%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며, FY2010에는 계속보험료의 안정적인 유입이 예상되지만 초회보험료가 FY2009에 비해 감소하면서 16.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 FY2010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3.2% 증가하고 손해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73.8%를 기록할 전망이다.
 - FY2009 원수보험료는 차량 관련 세제지원에 의한 신차 판매증가로 2.6%의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FY2010에는 실물경기 회복이 본격화 되면서 고가차량 위주의 등록대수 증가 및 대물·자차담보 강화

로 3.2% 성장할 전망

- FY2009 중 폭설로 인한 사고 급증으로 75.6%에 이르렀던 손해율은 FY2010에는 기저효과 및 보험료 규모 증대로 인해 개선될 전망
-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성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FY2009 8.1%에서 FY2010 8.3%로 성장률의 소폭 개선이 기대됨.
 - 화재보험은 FY2009년 전 종목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2.4% 감소하였으나, 2011년 노래방 및 PC방 등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FY2010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멈추고 0.2% 성장할 전망
 - 해상보험은 2008년 말 환율 영향으로 인한 고성장의 기저효과로 FY2009에 9.4% 감소하였으나, FY2010에는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5.8%의 성장이 예상됨.
 - 보증보험은 건설경기 둔화로 관련 이행보증보험시장 축소가 예상되나 경기회복으로 기타 보증보험의 성장이 예상되어 FY2009 8.7%에서 FY2010 9.6%로 성장률이 상승할 전망
 - FY2010 특종보험은 기업복지 차원의 단체상해보험 시장확대, 배상책임 범위 확대, 환율하락과 경기회복에 따른 여행자보험의 성장이 예상되나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기술보험의 부진으로 FY2009의 13.6%보다 낮은 9.1% 성장할 것으로 예상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보험종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생명보험	개인보험	679,058	13.4	677,526	-0.2	696,487	2.8	736,139	5.7	
	- 생존	223,900	24.0	220,147	-1.7	237,396	7.8	254,915	7.4	
	- 사망	306,813	4.3	304,888	-0.6	298,954	-1.9	307,876	3.0	
	- 생사혼합	148,345	19.4	152,491	2.8	160,137	5.0	173,348	8.2	
	단체보험	71,898	9.7	58,087	-19.2	74,994	29.1	72,019	-4.0	
	- 일반단체	11,712	-5.4	10,713	-8.5	8,978	-16.2	8,331	-7.2	
	- 퇴직보험	49,606	0.3	36,160	-27.1	30,917	-14.5	13,246	-57.2	
	- 퇴직연금	10,580	186.0	11,214	6.0	35,099	213.0	50,442	43.7	
	합 계	750,956	13.0	735,614	-2.0	771,481	4.9	808,158	4.8	
	손해보험	화 재	3,075	-1.8	2,835	-7.8	2,767	-2.4	2,772	0.2
해 상		6,518	3.1	8,507	30.5	7,707	-9.4	8,155	5.8	
자동차		108,095	12.0	109,371	1.2	112,215	2.6	115,806	3.2	
보 증		9,940	-13.0	11,529	16.0	12,532	8.7	13,735	9.6	
특 중		28,371	9.9	30,901	8.9	35,101	13.6	38,279	9.1	
장 기		163,436	19.5	188,828	15.5	230,930	22.3	269,806	16.8	
개 인		9,995	25.3	12,853	28.6	17,801	38.5	24,281	36.4	
퇴 직		보험	8,258	26.2	6,807	-17.6	9,530	40.0	3,583	-62.4
		연금	2,133	61.0	3,322	55.7	9,016	171.4	22,143	145.6
합 계		339,818	14.9	374,953	10.3	437,599	16.7	498,561	13.9	

주 : 1) 생명보험의 개인보험 각 종목은 변액보험을 포함함.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3. 보험회사 경영과제

<재무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

- 실물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함.
- 잠재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뿐만 아니라 FY2011부터 EU식 지급여력제도보다 강화된 RBC제도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이 급격히 증대되지 않도록 준비
- 성장 회복기에 접어들수록 불안전판매 등으로 인한 보험산업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보험회사의 독립채널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판매 규율을 강화하여 소비자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

<신규영역 투자 및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전략 마련>

- 전통형 보험업무 분야의 성장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존재하므로 성장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 투자를 통해 성장 분야에서 요구되는 상품개발, 전문인력, 가격설정 등 관련 인프라를 선진보험회사 수준으로 제고
- 국내 시장에서는 보험시장의 성숙으로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마련
- 신규 영역 투자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보험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 퇴직연금시장은 향후 계열사의 잠재유입 소진과 금융업권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지속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퇴직보험·신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및 신규 가입이 증대될 예정이므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선제적인 영업 전략이 필요
- 건강보험은 향후 성장 둔화와 손해율 상승이 예상되므로 급변하는 의료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영리병원 도입, 원격진료 허용, 외국인환자 유치업,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체계 정비,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허용, U-헬스의 활성화 등 의료시장의 제도 및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의료시장의 제도 및 환경변화는 민영 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 손해율 및 신시장 개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시장 변화에 대응할 필요
- 자동차보험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무리한 가격경쟁에 앞서 손해율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의료수가제도의 개선, 보험사기 감소 및 요율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손해율을 감소시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바람직

I. 전망 배경

-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 및 글로벌 공조의 지속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
 - 주요국의 금융시장 안정화와 재정지출 확대정책 및 국제적 정책 공조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 국제교역의 정상화 등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유로지역은 내수부진, 재정악화 등으로 회복이 지연
 - IMF는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반영하여 2010년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작년 말 이후 두 번에 걸쳐 상향 조정
- 국내경제도 적극적 경기부양책의 민간부문 파급과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호조세를 보이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유동성 공급과 통화스왑 체결에 의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재정지출 확대, 세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을 통한 민간 소비·투자 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현저히 회복
 - 더욱이 세계경제의 회복세, 특히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
- 그러나 최근 유럽의 재정문제 등 잠재적 위협요인이 점차 표면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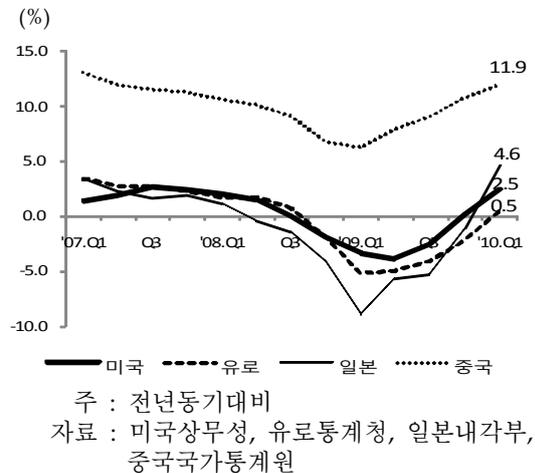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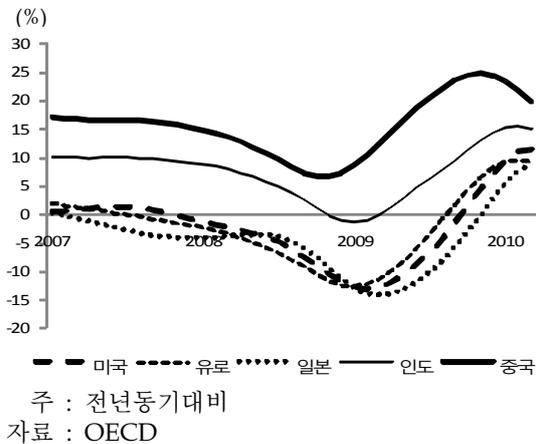
-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적극적인 안정화체제 구축으로 진정되고는 있으나, 서유럽의 금융불안과 동유럽의 신용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모습
 -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려운 상황
-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개선으로 보험산업도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금융업권간 및 보험업권내 경쟁 심화, 종목별 성장의 편차 등 시장구조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
-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에 대한 금융업권간 유치경쟁 치열, 경험생명표의 개정에 따른 특정종목의 초과성장,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저축성자금 흡수를 위한 유치경쟁 등 보험시장의 일시적 변동과 종목별 성장의 편차가 초래
 - 무해약환급금상품이나 판매수수료후취상품의 도입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상품 공시제도도 강화
- 이처럼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보험산업 관련 주요지표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 대한 변화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국내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을 실시
 - 보험시장의 최근동향 분석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험시장에 대한 전망을 수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

Ⅱ. 실물경제 · 금융 환경

1.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 및 글로벌 공조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
-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개선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최근에도 증가세를 가속하는 추세
- 미국, 일본은 수출의 증가세 전환, 민간소비의 증가 지속, 투자의 감소폭 축소 등 대외 및 내수의 동시적 증가로 회복이 가속
- 중국은 소비와 수출의 호조세로 두 자릿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로지역은 대외부문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소비·투자의 부진 지속으로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
-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인한 각국의 수요 증가로 세계무역도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정상수준으로 복귀하는 상황

<그림 1>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그림 2> 주요국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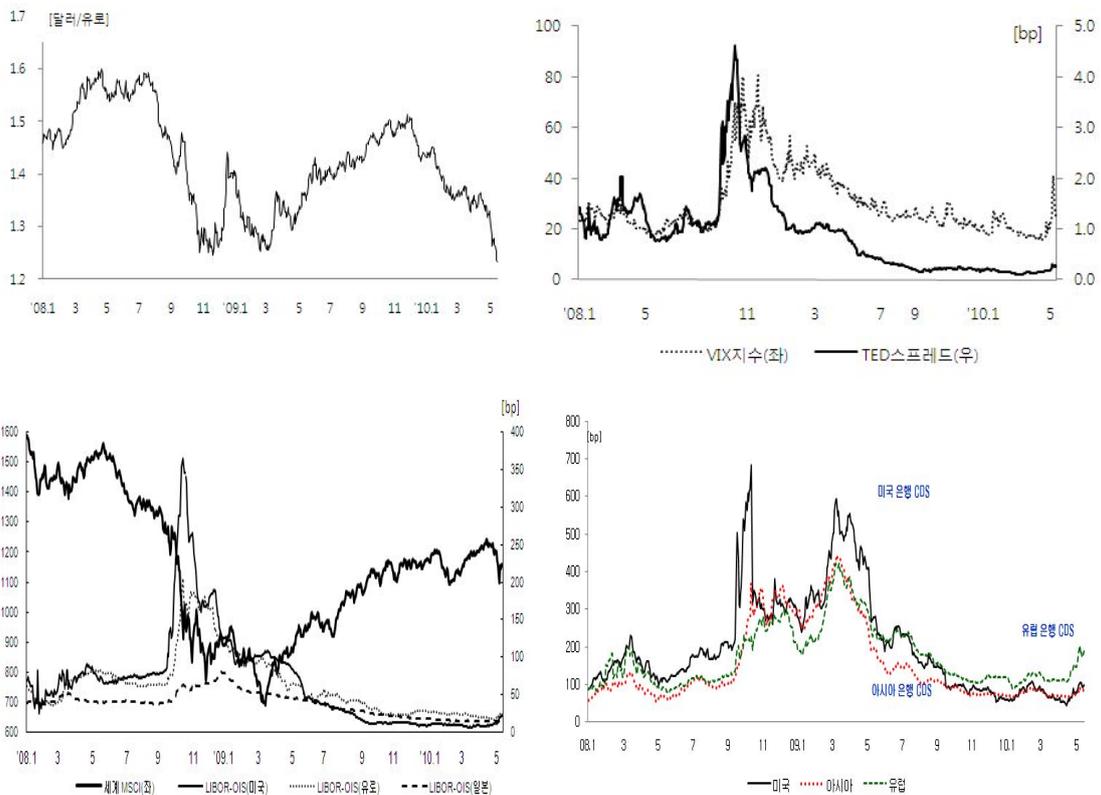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시장은 최근 남유럽 재정악화가 표면화되면서 주식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나, 글로벌 유동성과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투자심리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VIX(Volatility Index) 지수는 남유럽국가의 재정문제 대두 이후 급등하였고, 유로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주식·외환시장의 불안이 증가하는 모습

○ 그러나 단기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보여주는 LIBOR-OIS(overnight index swap) 스프레드 및 TED 스프레드는 작년 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CDS(신용부도스왑)도 안정적 추세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전성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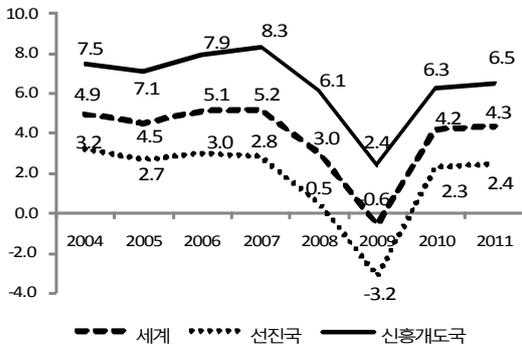
<그림 3>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근 주요지표 변화 추이



자료 : Bloomberg

- 향후 세계경제는 신흥개도국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현재의 회복세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각국의 수요진작에 힘입어 세계경제의 회복이 가속됨에 따라 세계경제성장을 2009년 말 이후 2번에 걸쳐 1.1%p 상향조정하면서 2009년 0.6%에서 2010년에는 4.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은 유럽의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의 회복세 가속으로 2009년의 감소세(-3.2%)에서 2010년에는 2.3%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신흥개도국은 중국, 인도 등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2009년 2.4%에서 2010년에는 6.3%로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

<그림 4>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표 1> 2010년 경제성장 전망 수정



자료 : IMF(2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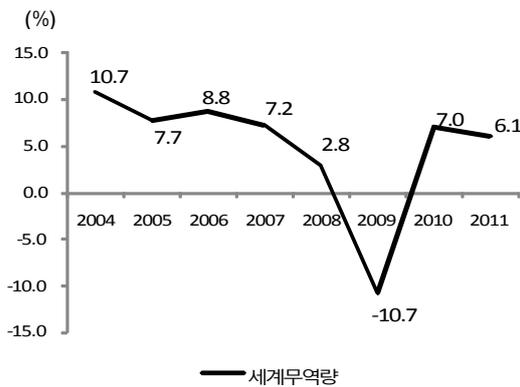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개도국
2009.10	3.1%	1.3%	5.1%
2010.1	3.9%	2.1%	6.0%
2010.4	4.2%	2.3%	6.3%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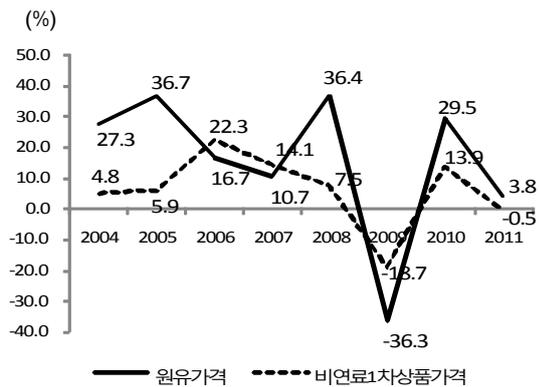
- 세계경기의 회복 지속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무역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지만,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 2009년에 10%이상 감소한 세계무역량은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회복에 따라 2010년에는 7.0%로 예년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증가로 2010년에 각각 29.5%와 13.9%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9년의 대폭적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며, 실물경제의 회복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그림 5> 세계무역 및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전망



자료 : IMF(2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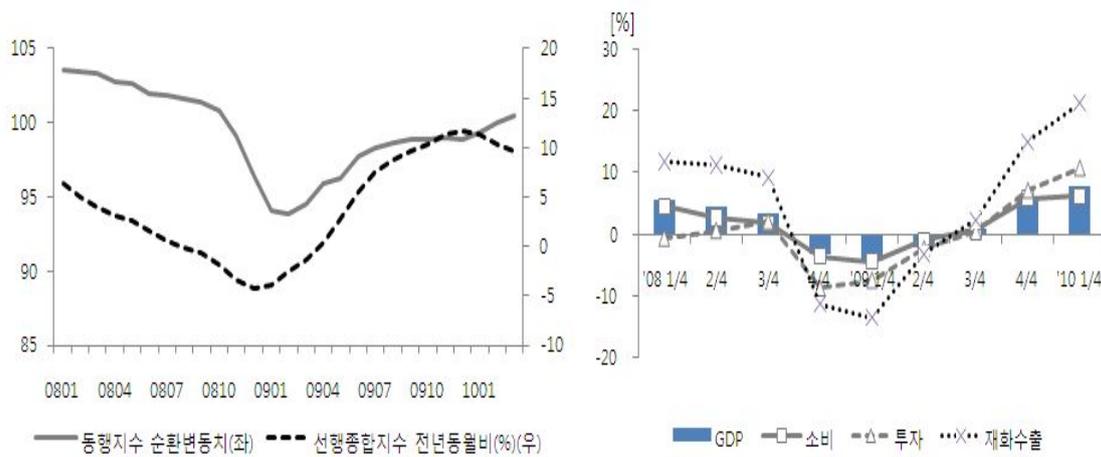
자료 : IMF(2010.4)

- 향후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유럽경기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음.
- 유럽연합의 재정안정기금 마련, 재정·경제정책 공조화, 부실국채 매입, 대출보증기금 설립 등 적극적인 안정화체제 구축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조기에 진정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위한 유럽 각국의 민간부채조정은 저축률 상승, 소비제약, 투자위축을 초래할 것이며, 정부부채조정은 정부지출을 감소시켜 유럽의 경기 회복세를 지연시킬 것임.
- 특히, 남유럽 재정문제가 서유럽의 금융불안과 동유럽의 신용경색으로 확산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유럽이외 경제권의 경기회복이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2.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지속적 상승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돌입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9년 2월 93.7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 추세
- 경기선행지수는 2008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0년 1월부터 소폭 하락하고 있어 향후 경기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

<그림 6> 경기종합지수 추이 <그림 7>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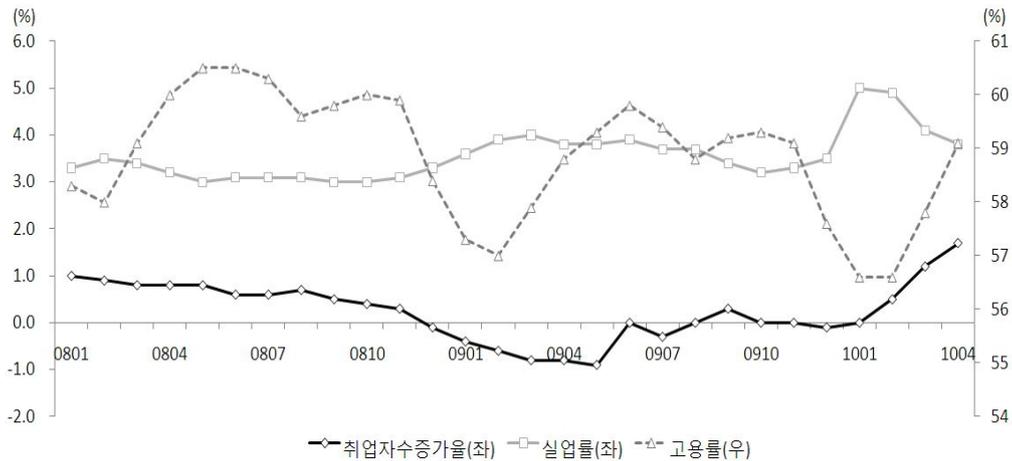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국내경기 회복은 적극적 경기부양책 효과의 민간부문 파급과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내수와 수출의 동시적 개선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임.
-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수출이 2009년 3/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증가세가 가속

- 내수부문은 민간소비가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 확대 및 설비투자 증가로 투자 또한 2009년 4/4분기 이후 크게 증가
 - 이러한 수출과 내수의 회복으로 실질GDP 성장률은 2009년 3/4분기 증가세로 전환된 후 4/4분기 6.1%, 2010년 1/4분기 7.8%의 빠른 성장세를 시현
- 2010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함께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5.3%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소비는 다소 둔화될 것이지만, 민간소비는 고용사정 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금융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4.5%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에 따른 생산설비 확대에 14.6%의 증가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민간건설이 부진할 것이나 정부 SOC투자가 지속되면서 1.4%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수출은 유럽경제의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 특히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11.8%의 증가가 예상
 - 수입은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15.2%의 증가세에 달할 전망
- 고용시장의 여건도 경기회복으로 금년 초부터 침체에서 벗어나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빠르게 개선되는 상황임.
- 취업자수는 2010년 1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4월에는 1.7%까지 증가하고, 고용률도 같은 기간 중 56.6%에서 59.1%로 상승

- 실업률도 졸업자의 구직 희망 등 계절적 요인으로 지난 1월에 5.0%로 높아졌으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4월에는 3.8%로 하락

<그림 8> 취업자수 증가율, 고용률, 실업률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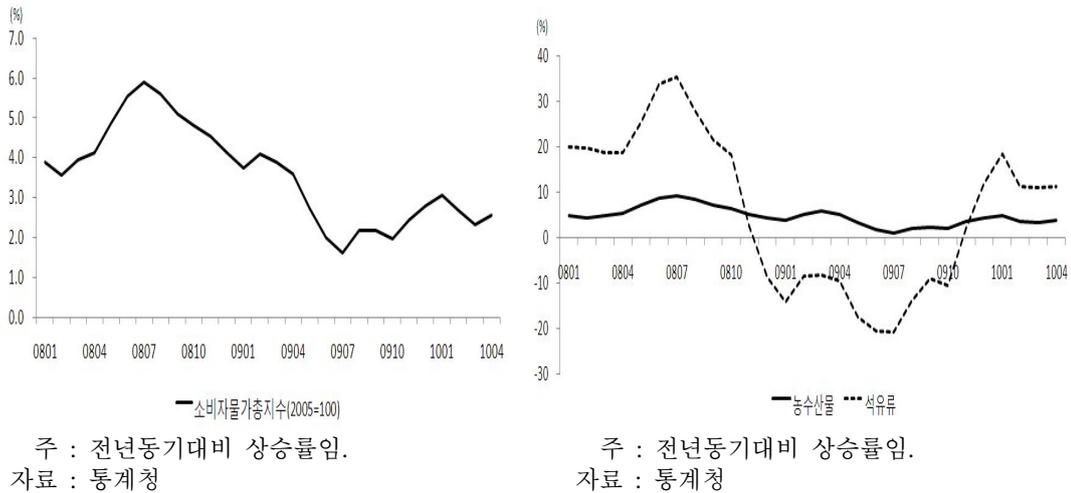
주 : 취업자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 향후 고용사정은 더욱 개선될 것이나 경기회복을 통한 고용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수출 및 내수경기 호조로 고용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 증가가 기대되는 제조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가 서비스업에 비해 낮아 경기확대에 의한 고용창출은 제한적
- 정부의 일자리대책¹⁾이 작년과 비교해 축소될 계획이어서 정부 지원에 의한 고용창출도 한계가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고용률은 2009년에 58.6%에서 2010년에 58.9%로 상승하며, 실업률은 3.6%에서 3.5%로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

1) 2009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은 총 52만명이었으나 2010년은 총 29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음.

-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중반까지 지속적인 둔화 이후 2%초반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석유류 및 농수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소 가속되는 모습임.
- 국제유가의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의 소비자 가격이 2009년 12월부터 두 자릿수 상승세를 지속
- 농수산물 가격도 2010년 1월까지 다소 둔화된 이후 4%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림 9>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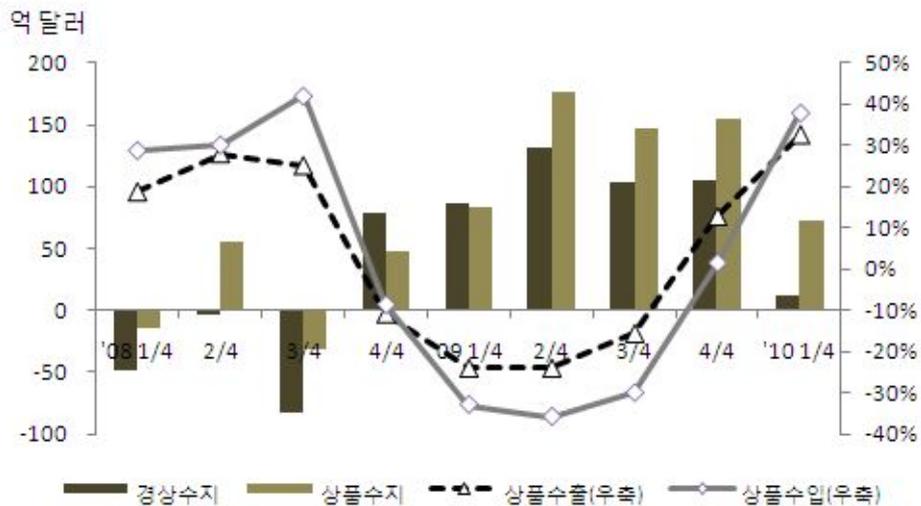
- 향후 소비자물가는 경기 회복세에 의한 수요압력과 국제유가 등 비용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3%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 경기회복의 가속, 풍부해진 유동성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비용상승 요인이 작용하면서 물가 상승압력이 가중될 전망

□ 국제수지는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불황형 흑자구조를 탈피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는 추세임.

○ 작년 4/4분기부터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수출과 수입이 증가세로 반전되고, 금년 1/4분기 중에는 수입 증가율(37.9%)이 수출 증가율(32.6%)을 초월하면서 상품수지가 작년 4/4분기 155억 달러의 절반 수준인 73억 달러로 축소

○ 경상수지도 여행수지의 악화 등으로 작년 4/4분기 106억 달러에서 금년 1/4분기에는 12억 달러로 대폭 축소

<그림 10> 수출입 및 국제수지 추이



□ 향후 국제수지는 국내경기의 상대적인 빠른 회복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전망이다.

○ 상품수출은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전년에 비해 18.1% 증가한 4,410억 달러, 상품수입은 내수 및 수출 증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29.1% 증가한 4,09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는 2009년의 60% 수준인 313억 달러, 경상수지도 경기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의 악화로 작년 1/4분기 수준인 108억 달러로 대폭 축소될 전망

<표 2>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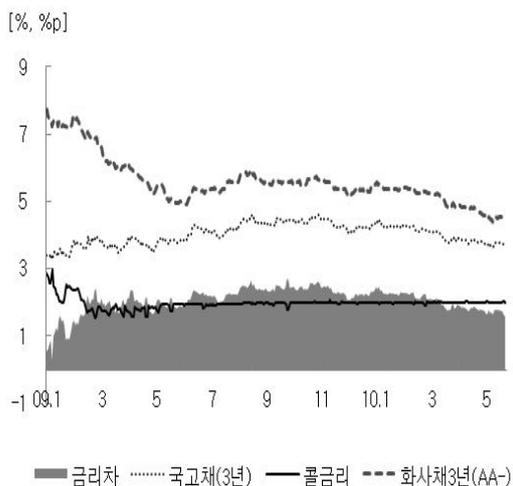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F)
실질GDP	5.1	2.3	0.2	5.3
(명목GDP)	7.3	5.3	3.6	8.1
민간소비	5.1	1.3	0.2	4.5
건설투자	1.4	-2.8	4.4	1.4
설비투자	9.3	-1.0	-9.1	14.6
재화수출	11.9	4.6	0.0	11.8
재화수입	10.9	4.5	-7.9	15.2
실업률	3.2	3.2	3.6	3.5
(고용률)	59.8	59.5	58.6	58.9
소비자물가	2.5	4.6	2.8	3.1
경상수지(억달러)	58.8	-57.8	426.7	108.1
상품수지(억달러)	281.7	56.7	561.3	312.9
상품수출(억달러)	3,790.5	4,329.2	3,735.8	4,410.3
(%)	(14.2)	(14.2)	(-13.7)	(18.1)
상품수입(억달러)	3,508.8	4,272.5	3,174.6	4,097.4
(%)	(15.4)	(21.8)	(-25.7)	(29.1)

주 : 2010(F)는 전망치임.

3.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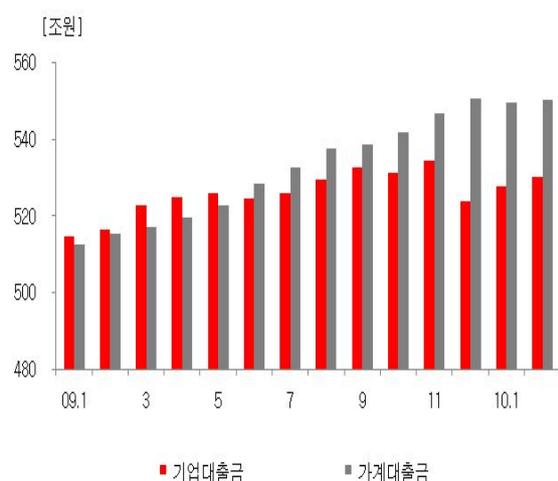
- 정책적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시중금리의 점진적 하락, 민간대출의 증가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임.
- 기준금리가 작년 2월부터 2.0%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콜금리, CD금리 등 단기 시중금리도 2%대에서 안정되면서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가 작년 중반 이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 신용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금리차) 등이 축소되고 있어 신용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
-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유동성 증가로 민간부문의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계대출 증가가 기업대출 증가를 상회

<그림 11>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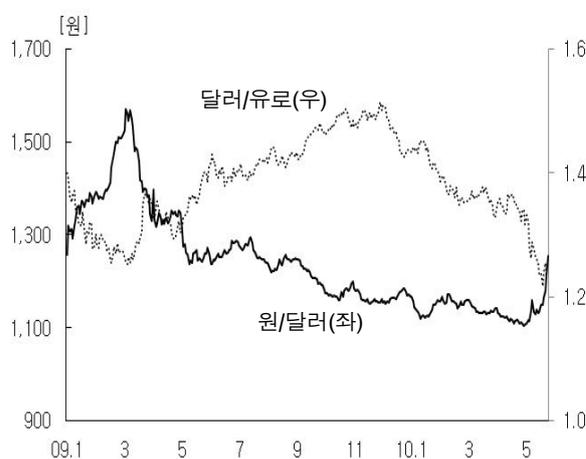
<그림 12> 가계 및 기업 대출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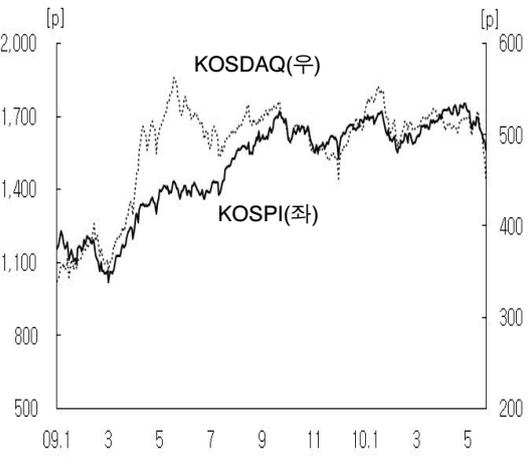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경상수지 흑자 유지, 외국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경상수지 흑자, 대외 신인도 향상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외화수급 개선으로 2009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
- 국내 주식시장도 경기의 빠른 회복과 금융시장의 안정 등에 힘입어 금년 초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
- 다만, 최근 대외적으로 남유럽 재정위기에 의한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 국내적으로 남북관계의 급랭 등으로 외환 및 주식시장이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

<그림 13> 원/달러, 달러/유로 추이 <그림 14> 국내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 증권거래소(KRX)

- 향후 시중금리는 경기회복의 가속,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됨.
 -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된 유동성, 경기회복의 가속에 따른 수요증가 등에 의해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2010년 5월말 현재 5.4%와 4.3%인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는 하반기에 각각 5.7%와 4.7%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연평균 5.5%와 4.5%에 이를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인해 2009년 평균 1,276원/달러 2010년에 1,095원/달러로 하향 안정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의 흑자 누적에 따른 외환공급 능력의 개선으로 원화 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며, 중국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유로지역의 리스크가 확산되거나 남북관계의 냉각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표 3> 국내 금리 및 환율 전망

(단위 : %)

	2007	2008	2009	2010(F)		
				연간	상반기	하반기
회사채(AA-)	5.7	7.0	5.8	5.5	5.3	5.7
국고채(3년)	5.2	5.3	4.0	4.5	4.2	4.7
원/달러(평균)	929.2	1,099.5	1,276.4	1,094.8	1,127.0	1,062.5

주 : 2010(F)는 전망치임.

<남유럽 재정위기의 국내경제 영향>

- 남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경제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 실물경제의 파급 경로는 '유로경제 침체에 의한 수요 부진 → 유로지역 수출 감소 → 경제성장 둔화'
 - 금융시장의 파급 경로는 '유로화 하락, 유로의 금리 상승 및 주가 하락 → 유럽 금융시장 불안 → 글로벌 및 국내 금융시장 불안 →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 경제성장 둔화'
- 수출 감소에 의한 실물경제의 영향은 유로지역 수출비중을 고려할 때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2009년 유로지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466억 달러로 총수출의 12.8%, 남유럽 재정위기국가들인 PIIGS에 대한 수출은 86억 달러로 총수출의 2.4% 수준
 - * PIIGS란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5개국을 말함.
 - 2009년 현재 실질 기준 GDP 대비 수출비중이 39.8%임을 감안할 때 유로지역 수출이 절반으로 하락 혹은 PIIGS 수출이 모두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라도 GDP의 2.6% 및 0.9% 수준에 불과
- 문제는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 심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되어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회복이 지연 내지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경우이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안정화체제 구축, IMF의 지원, 그리고 주요국의 정책적 공조체계를 고려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는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북한과의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교역중단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북한과의 교역규모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수출 7.4억 달러(총수출의 0.2%), 수입 9.3억 달러(총수입의 0.3%)로 미미한 수준이며,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기 때문에 GDP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제품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주요 수입품인 섬유, 농산물 등의 국내 공급 부족 또는 대체 수입으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나, 작은 수입규모를 고려할 때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임.
 - 2010년 4월 기준, 북한 수입품목별 비중은 섬유류가 46.7%, 전기전자제품 17.4%, 농림수산물 15.6% 등의 순임.
-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실물경제의 악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남북간 긴장관계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외국인 국내투자의 감소, 국내 소비 및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경기 회복세의 둔화가 초래될 수 있음.

Ⅲ.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1. 주요지표

-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성장세를 회복한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FY2010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률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FY2009 8.9% → FY2010 8.1%)
- 생명보험은 FY2009 하반기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의 큰 폭 성장으로 4.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FY2010에도 생사혼합보험 및 변액보험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은 FY2009 수준인 4.8%를 나타낼 전망이다
- 손해보험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손해보험이 고성장을 나타냈고 자동차보험도 성장세를 회복하여 FY2009에는 16.7% 성장했으며, FY2010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져 13.9%의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이다

<표 4>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생명보험	75.1	13.0	73.6	-2.0	77.1	4.9	80.8	4.8
손해보험	34.0	14.9	37.5	10.3	43.8	16.7	49.9	13.9
전 체	109.1	13.6	111.1	1.8	120.9	8.9	130.7	8.1

-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경상GDP*)는 수입보험료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FY2009, FY2010 각각 11.1%, 11.2%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보험침투도의 경상GDP는 FY기준이며, FY2010 경상GDP는 6.8% 성장 전망

<그림 15> 보험침투도 추이



-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수입보험료의 꾸준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으로 인한 투자환경 호전으로 11.1%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표 5>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생명보험	305.4	11.8	328.3	7.5	369.2	12.4	407.6	10.4
손해보험	66.0	15.9	74.0	12.1	85.8	15.9	98.0	14.2
전 체	371.4	12.5	402.3	8.3	454.9	13.1	505.5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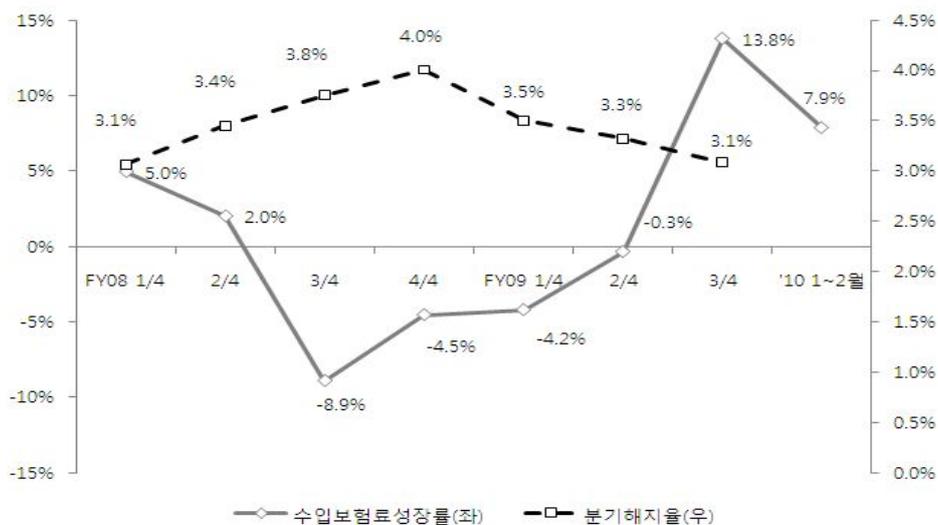
2. 생명보험

1) 수입보험료

□ FY2009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연금과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회복되고 해지율이 진정되면서 4.9%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함.

- 생사혼합보험은 2009년 이후 20% 전후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반연금 및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선수요가 반영되어 2009년 말 큰 폭의 성장세 시현
- 생명보험 전체 분기해지율은 FY2008 4/4분기 4.0%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안정되면서 FY2009 3/4분기에는 예년 수준인 3.1%까지 하락

<그림 16>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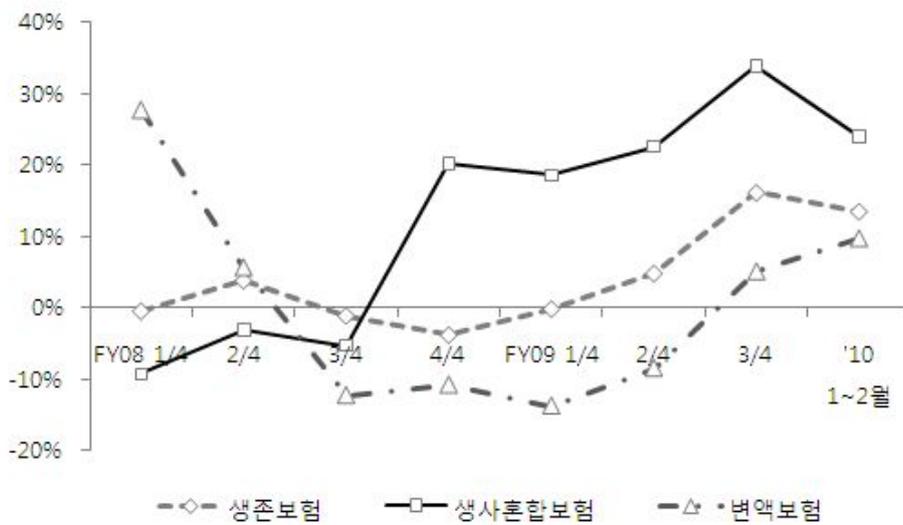


주 :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 FY2010에는 금리 및 세계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생사혼합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금융시장 안정으로 변액보험 수요도 증가하면서 성장률은 FY2009 수준인 4.8%를 나타낼 전망이다.

○ FY2009 하반기에 초과 성장한 연금보험의 성장세가 하반기에 약화되고 사망보험의 저성장 기조 또한 지속될 전망이나,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의 고성장이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

<그림 17> 저축성보험 성장률 추이



○ 2010년 말 퇴직보험제도 폐지를 앞두고 퇴직연금 보험료가 생명보험회사로 얼마나 유입되는 지에 따라 수입보험료 실적치는 크게 바뀔 수 있음.

2) 일반계정 종목별 수입보험료

가) 사망(보장성)보험

- FY2009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질병보험 수입 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사망보험은 전체적으로 1.9% 감소함.
 - FY2009 2월 누적 사망보험 계속보험료는 질병보험의 해지 증가로 -2.6%의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초회보험료는 종신보험과 통합형 보험을 중심으로 44.5% 성장
- FY2010 사망보험은 종신보험 및 통합형 보험의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질병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2.9%의 저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 종신보험과 통합형 보험은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회사들의 리스크 부담이 큰 정액형 질병보험 부문에서의 수입보험료는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
 - 상품표준화가 단행된 실손의료보험은 특약 위주로 판매되고 있어 질병보험 부문의 감소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나) 생존보험

- 생존보험은 2009년 말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연금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가격인상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하려는 선수요가 반영되어 초과 성장함.
 - 새로운 6차 경험생명표가 2009년 10~12월에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생존보험 초회보험료는 FY2009 2/4분기 29.7%, 3/4분기 107.2% 성장

- FY2009 2월 누적 초회보험료 중 일시납보험료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6.4%p 증가한 90.6%를 기록하는 등 일시납이 초회보험료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
- FY2010 생존보험은 FY2009 하반기에 초과 성장한데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하겠으나 연금에 대한 지속적 수요로 6.4% 성장할 전망이다.
- FY2009 하반기 일시적인 초과수요가 대부분 일시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보험료 유입을 통한 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워 FY2010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어 연금보험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다) 생사혼합보험

- 생사혼합보험은 금융위기 직후부터 20% 전후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금리 및 세제 측면에서 우위를 갖는 보험회사의 저축성상품이 시중 부동산자금을 흡수했기 때문임.
-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산자금이 보험권으로 몰리면서 이례적인 고성장세를 기록
- FY2009 2월 누적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는 87.6% 성장하였으며, 계속보험료 또한 꾸준히 성장
-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은 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사와 중소형사에서 주도

- FY2010 들어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공시이율에 대한 상한 설정,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하반기 기저효과 존재에도 불구하고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 호조로 11.4% 성장할 전망이다.
- 최근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저축성 상품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보험회사 및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전략, 타 저축성 상품 대비 금리 및 세제 우위 등의 요인에 힘입어 고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2010년 2월 22일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 상한을 공시기준이율의 20%로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저축성상품의 공시이율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

라) 단체보험

- FY2009 일반단체보험은 신계약 부진 및 해지 등으로 수입보험료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FY2010에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됨.
- FY2009 2월 누적 초회보험료는 1.7% 감소하였으며, 해지 증가로 계속보험료도 18.1%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2.4% 감소
- FY2010에도 성장요인을 찾기 어려우며 해지 증가 추세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7.2% 마이너스 성장 전망

<표 6> 일반계정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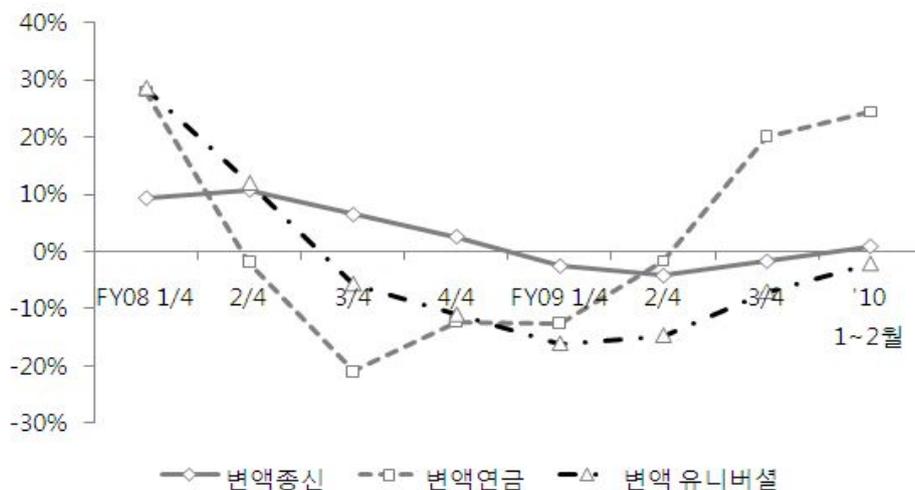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사망보험	297,700	4.2	294,531	-1.1	289,023	-1.9	297,548	2.9
생존보험	141,403	8.6	140,714	-0.5	153,036	8.8	162,831	6.4
생사혼합보험	66,043	-2.8	66,365	0.5	82,940	25.0	92,358	11.4
일반단체보험	11,712	-5.4	10,713	-8.5	8,978	-16.2	8,331	-7.2
합 계	516,858	4.2	512,324	-0.9	533,977	4.2	561,067	5.1

3) 변액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 변액보험은 FY2009 수입보험료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금융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큰 폭의 성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음.
- FY2009 하반기 신규가입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비한 변액연금 수요 증가의 영향을 제외하면 수요 증가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

<그림 18> 변액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 FY2010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변액연금보험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 회복이 전망됨.
-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 하락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가입에 적극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확신이 확대되면서 변액보험 수요가 점차 회복될 전망
- 향후 수수료 후취 상품이 개발되면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가) 변액연금보험

- 변액연금은 FY2009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비한 수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FY2010에는 주식시장 안정에 힘입어 9.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시장 안정으로 변액연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확신이 확대되면서 변액연금 수요 또한 점진적 증가 예상
- 또한 변액보험은 일반계정에 비해 초회보험료 중 일시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계속보험료의 활발한 유입 기대

나) 변액유니버설보험

- FY2010에도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신규 수요는 증대되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4.9%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주식시장 안정과 함께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금액이 크지 않고, 오히려 환매를 위한 해지로 인해 계속보험료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부진한 모습
- 그러나 자본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요가 회복되고, 일반계정 생사혼합보험의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표 7> 변액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변액종신	9,112	6.4	10,357	13.7	9,932	-4.1	10,328	4.0
변액연금	82,497	63.6	79,433	-3.7	84,360	6.2	92,084	9.2
변액유니버설	82,302	46.2	86,125	4.6	77,197	-10.4	80,990	4.9
합 계	173,912	50.9	175,916	1.2	171,488	-2.5	183,403	6.9

주 : 변액종신보험은 변액기타보험을 포함함.

4)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 FY2009 퇴직연금은 계열사 물량 유입, 퇴직금 사내유보금 손비 인정 비율 축소 효과 등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함.
 -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금융업권간 경쟁심화로 생명보험 부문의 퇴직보험 적립금이 유출되었으나 2009년 말 일부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으로 동 부문의 성장률은 39.3% 기록
 - 또한 FY2009 퇴직금 사내유보금 손비 인정비율이 35%에서 30%로 축소되면서 퇴직연금 가입이 증대된 효과 존재

-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2010년이 제도 전환의 종료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고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일시적 요인의 소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3.5% 축소될 전망이다.
- 생명보험사의 대기업 계열사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존한 대기업의 경우 복수사업자 선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퇴직보험 감소 규모가 퇴직연금 증가 규모를 초과할 가능성 존재
- FY2010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로 인해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도전환에 따른 금융업권간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상존

<표 8>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퇴직보험	49,606	0.3	36,160	-27.1	30,917	-14.5	13,246	-57.2
퇴직연금	10,580	186.0	11,214	6.0	35,099	213.0	50,442	43.7
합 계	60,186	13.2	47,374	-21.3	66,015	39.3	63,688	-3.5

- 한편, 2010년 4월 기준 생명보험권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가 DB형에 가입했으며, 적립금 규모 중 DB형이 86.1%를 차지하는 등 생명보험 퇴직연금은 DB형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개인보험	679,058	13.4	677,526	-0.2	696,487	2.8	736,139	5.7
- 생존	223,900	24.0	220,147	-1.7	237,396	7.8	254,915	7.4
- 사망	306,813	4.3	304,888	-0.6	298,954	-1.9	307,876	3.0
- 생사혼합	148,345	19.4	152,491	2.8	160,137	5.0	173,348	8.2
단체보험	71,898	9.7	58,087	-19.2	74,994	29.1	72,019	-4.0
- 일반단체	11,712	-5.4	10,713	-8.5	8,978	-16.2	8,331	-7.2
- 퇴직보험	49,606	0.3	36,160	-27.1	30,917	-14.5	13,246	-57.2
- 퇴직연금	10,580	186.0	11,214	6.0	35,099	213.0	50,442	43.7
합 계	750,956	13.0	735,614	-2.0	771,481	4.9	808,158	4.8

주 : 변액보험은 종목별로 개인보험에 포함됨.

<보험상품 과당경쟁에 대한 조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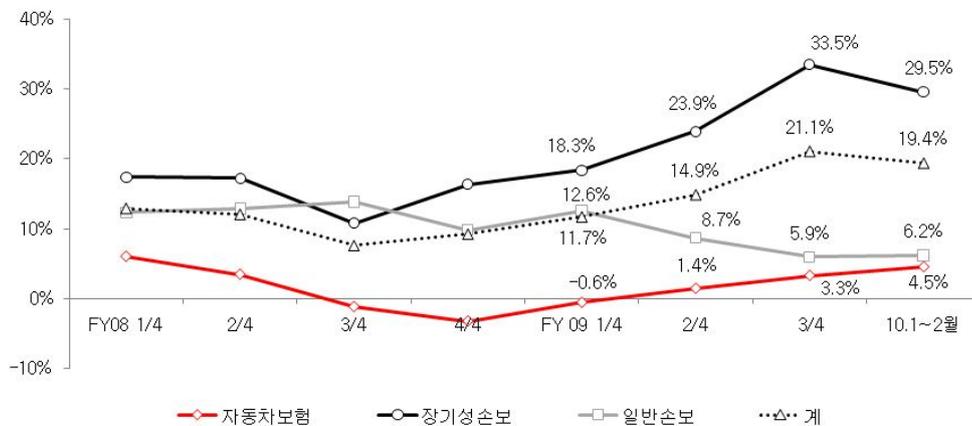
- 최근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보험 시장에서 보험사들의 과열경쟁이 나타나는 양상이며,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몇몇 생·손보사들이 고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간 고금리 경쟁도 확대되고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고금리 경쟁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저축성보험 상품의 고금리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공시이율의 상한을 설정하고 직접적인 공시이율 인하를 지도하였으며,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지난 2월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 상한을 공시기준이율의 20%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
 -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저축성 보험상품 고금리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판매 중이거나 개발 중인 저축성보험 상품의 공시이율을 20% 인하하라고 지시함.*
- * 서울경제, 「저축성보험 국내 과당경쟁 '브레이크」, 2010. 4. 13
-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고금리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내용을 발표함.
 - 금융회사들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손실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심사기준금리를 설정하도록 하고, 금리수준이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리스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지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리경쟁 이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함.

3. 손해보험

1) 원수보험료

- FY2009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장기성 손해보험²⁾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자동차보험의 회복세에 힘입어 16.7%의 견조한 성장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은 실물경기 회복 및 정부의 차량관련 세제 지원 효과로 차량등록대수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
- 장기성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성장을 견인하던 상해 및 질병보험의 신계약이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로 FY2009 3/4분기 이후 침체되었으나 저축성보험의 판매 호조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 일반손해보험은 FY2009 화재 및 해상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종 및 보증보험 성장에 의한 상쇄효과로 양호한 증가세 유지

<그림 20>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2) 장기성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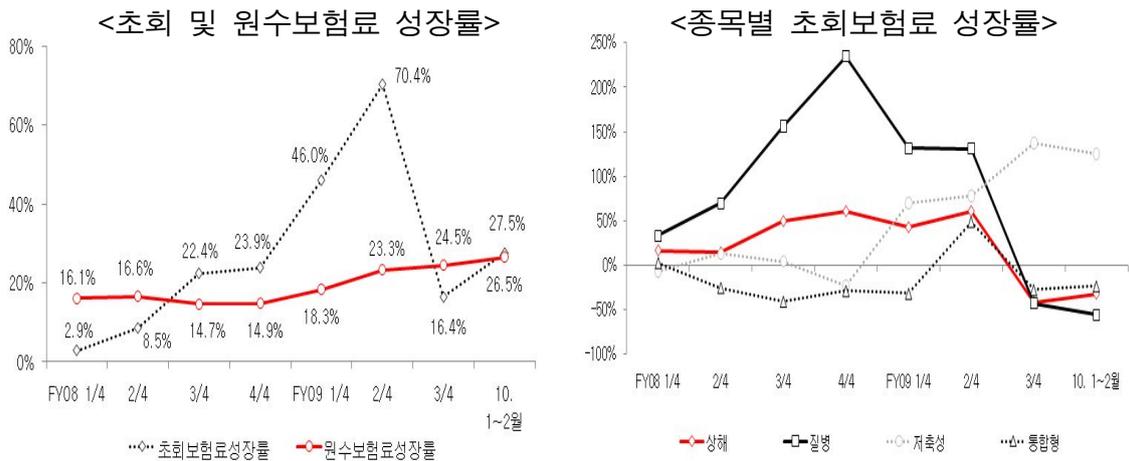
- FY2010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이 지속되고,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도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13.9% 성장할 전망이다.
-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유입과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
-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내수경기 회복이 신차 및 고가차량 판매로 이어지면서 전년도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손해율 악화 및 정비수가 상승 등으로 예상되었던 보험료 인상이 정부의 요율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불투명해짐에 따라 성장률은 소폭에 그칠 전망
- 일반손해보험은 비중이 큰 특종 및 보증보험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도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2) 장기성 손해보험

- FY2009 장기성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과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부문의 수요 급증으로 26.2%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은 상반기 상해 및 질병보험의 고성장과 하반기 저축성보험의 신규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22.3%의 성장률을 기록
 -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이전에 가입하려는 대기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는 FY2009 2월 누적 기준 40.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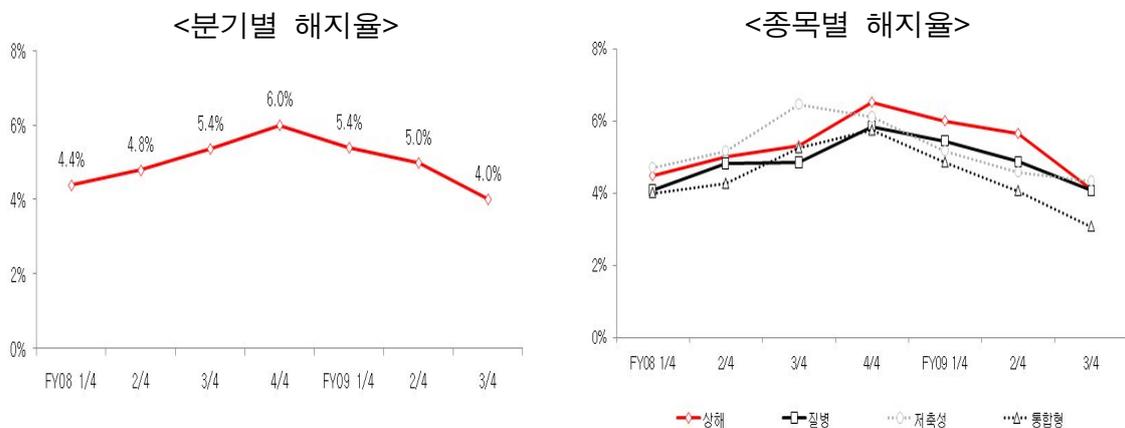
- 분기별로는 제도가 시행된 FY2009 2/4분기 이후 상해 및 질병 보험의 신계약 감소로 초회보험료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하반기 저축성보험의 판매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로 전환

<그림 21> 장기손해보험 초회 및 원수보험료 성장률 추이



- 장기손해보험의 해지율은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보험수요 증가와 기존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메리트 증대로 FY2008 4/4분기 이후 하향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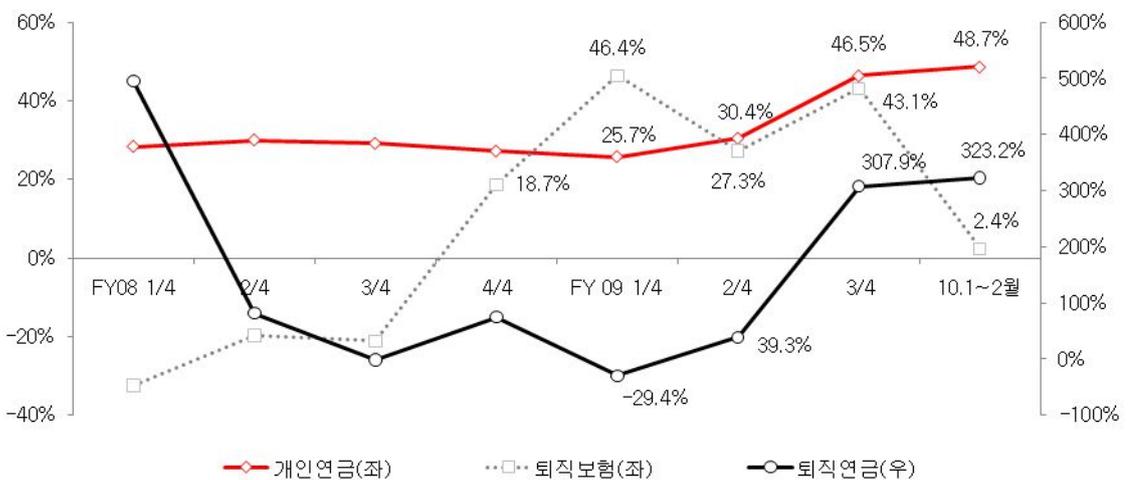
<그림 22>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추이



주 :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 개인연금의 원수보험료는 내수경기 회복과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38.5% 성장
- 퇴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대형 사업장들의 계약 체결로 40.0% 증가했으며,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요 확대 로 171.4% 급증

<그림 23>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성장률 추이



- FY2010 장기성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성장 둔화로 소폭 하락한 19.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전년도 신계약 급증과 해지율 안정화 추세로 계속보험료의 안정적인 유입이 예상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6.8%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 기조를 유지할 전망
- 그러나 전년도 신계약 급증을 주도한 실손의료보험의 선계약 효과 종료, 중복가입에 대한 사전확인 강화,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에 따른 업권간 경쟁 심화 등의 요인들은 초회보험료 성장률을 다소 둔화시킬 전망

- 종목별로는 상해 및 질병보험 등 실손의료보험 부문에서의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 확대도 지속될 전망
 - 기대수명 증대, 노인부양비 및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개인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상해 및 질병보험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저축성보험은 경기회복 및 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역마진 우려에 따른 공시이율 인하 추세 등은 성장에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통합형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와 상해 및 질병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가 신계약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전년도 수준의 성장에 그칠 전망
- 개인연금은 목돈 마련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대비 상품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자산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계의 연금판매 확대 전략 등에 힘입어 36.4%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
- 퇴직보험은 기존 퇴직보험 관련 제도 종료로 앞두고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큰 폭 성장이 예상
 - 2011년부터 퇴직보험 및 신탁에 대한 손비인정 제도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기존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및 신규 가입이 증가하면서 퇴직보험시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비해 퇴직연금시장은 정부의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

- 퇴직연금시장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선점을 둘러싼 타업권과의 치열한 경쟁과 상대적으로 열세인 영업력 등의 제약 요인으로 FY2010 퇴직보험 성장률은 전년도 수준에 머무를 전망

<표 10> 장기성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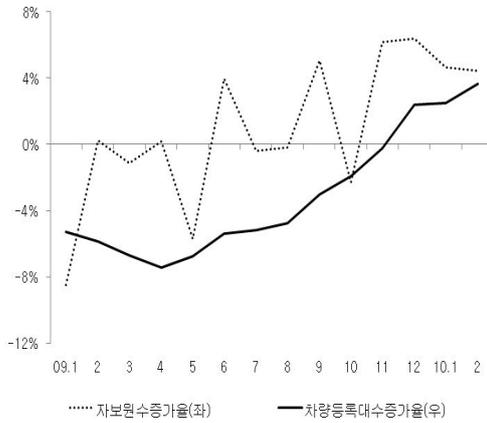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장기손보	163,435	19.5	188,829	15.5	230,930	22.3	269,806	16.8
개인연금	9,995	25.3	12,853	28.6	17,801	38.5	24,281	36.4
퇴직보험	8,258	26.2	6,807	-17.6	9,530	40.0	3,583	-62.4
퇴직연금	2,133	61.0	3,322	55.7	9,016	171.4	22,143	145.6
합 계	183,821	20.4	211,810	15.2	267,278	26.2	319,813	19.7

3) 자동차보험

- FY2009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내수경기 회복 및 차량 관련 세제지원책 효과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2.6% 증가함.
-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작년 말까지 시행된 정부의 차량 관련 세제지원책 효과로 인한 신차판매 급증이 자동차보험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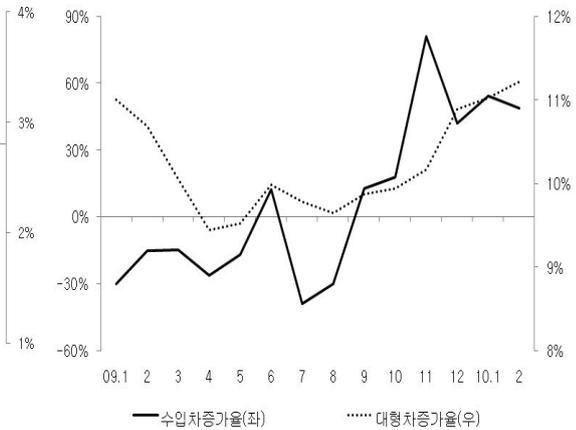
<그림 2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추이

<자보원수보험료 및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자료 : 국토해양부

<수입차/대형차 등록대수 증가율>



자료 : 국토해양부

- FY201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본격적인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성장 여건 개선으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온라인채널 판매 비중 확대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소멸 등으로 3.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FY2010 자동차보험은 실물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차량등록대수 증가세 및 대물·자차담보 강화 추세가 이어지고 보험료 할증 기준 다양화에 따른 요율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회복 기조가 지속될 전망
 - 특히, 보험료가 고가인 수입차와 중·대형차 판매 호조로 인한 차량의 고급화 추세도 자동차보험시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온라인 판매 채널의 비중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 심화,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시행, 정부의 요율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불투명은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 11>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자동차	108,095	12.0	109,371	1.2	112,215	2.6	115,80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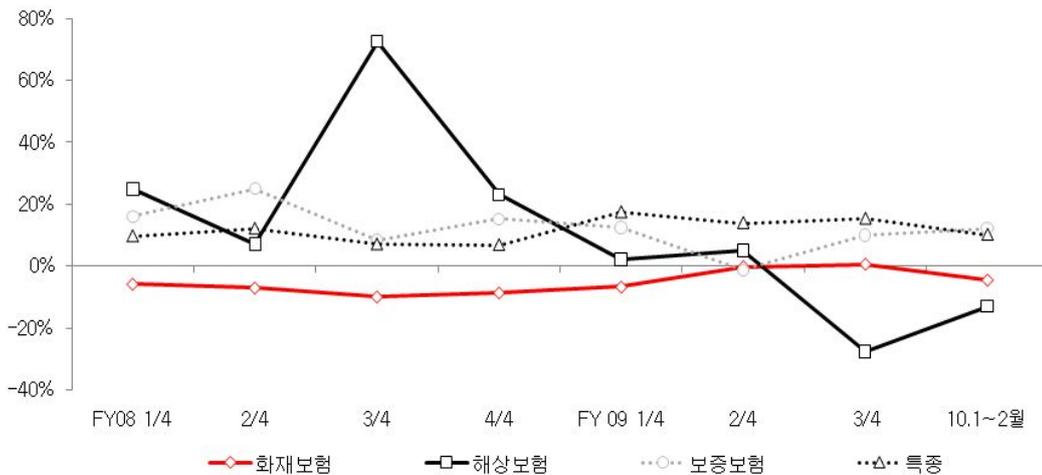
4) 일반손해보험

□ FY2009 일반손해보험은 특종 및 보증보험의 증가가 화재 및 해상보험의 감소세를 상쇄하여 8.1%의 성장률을 나타냄.

- 화재보험은 FY2009 3/4분기 주택물건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공장물건과 일반물건이 성장하여 0.7% 증가했으나 2010년 1~2월은 전 종목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4.4% 감소
- 해상보험은 FY2008 환율 영향으로 인한 고성장의 기저효과로 9.4% 감소
 - 해상보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이 기저효과로 2010년 1~2월 각각 24.0%, 11.5% 감소
 - 단, FY2009 3/4분기 -27.5%의 해상보험 마이너스 증가세가 2010년 1~2월 약화됐으며 이는 수출입 물량의 증가에 기인
- 보증보험은 FY2009 2/4분기 1.3% 감소하였으나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8.7% 성장
- 특종보험은 기술, 책임, 상해, 종합보험 등 전 종목의 성장으로 13.6%의 성장률을 시현
 - 상해보험은 단체상해보험의 지속적 성장으로 2010년 1~2월 16.0% 증가
 - 종합보험은 FY2009 3/4분기 5.3% 증가했으나 2010년 1~2월 기업성 물건 감소로 9.0% 감소

- 책임보험은 2010년 1~2월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감소효과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을 상쇄하여 0.1% 감소
- FY2009 기술보험은 공공부문 건설투자 증가에 힘입어 48.0% 성장

<그림 25> 일반손해보험 성장률 추이



- FY2010 일반손해보험은 경기회복 및 수요증가로 인한 특종 및 보증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8.3%의 성장이 예상됨.
 - 화재보험은 종합보험 성장에 따른 물건이탈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노래방 및 PC방 등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의무화가 2011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
 - 해상보험은 환율 안정화로 가격변동성이 적어지고 동시에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5.8%의 성장이 예상
 - 보증보험은 건설경기 둔화로 관련 이행보증보험시장의 축소가 예상되나 경기회복에 의한 기타 보증보험의 성장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9.6% 성장할 전망

- 특종보험은 상해보험과 책임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9.1%의 양호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상해보험은 일반상해보험의 경우 큰 변동성이 없겠으나, 환율 하락과 경기회복으로 여행보험 및 단체상해보험이 성장하여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종합보험은 관심 증대로 인한 수요증가로 성장이 예상되나, 기업성 물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
 - 책임보험은 전문직업인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배상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수준의 개선으로 1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기술보험은 건설 관련 기술보험이 FY2009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증가로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FY2010에는 기저효과 및 건설경기 둔화로 3.2% 감소할 전망

<표 12>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화 재	3,075	-1.8	2,835	-7.8	2,767	-2.4	2,772	0.2
해 상	6,518	3.1	8,507	30.5	7,707	-9.4	8,155	5.8
보 증	9,940	-13.0	11,529	16.0	12,532	8.7	13,735	9.6
특 종	28,371	9.9	30,901	8.9	35,101	13.6	38,279	9.1
합 계	47,904	2.6	53,771	12.2	58,107	8.1	62,942	8.3

주 : 특종보험 기타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표 1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화 재	3,075	-1.8	2,835	-7.8	2,767	-2.4	2,772	0.2
해 상	6,518	3.1	8,507	30.5	7,707	-9.4	8,155	5.8
자동차	108,095	12.0	109,371	1.2	112,215	2.6	115,806	3.2
보 증	9,940	-13.0	11,529	16.0	12,532	8.7	13,735	9.6
특 종	28,371	9.9	30,901	8.9	35,101	13.6	38,279	9.1
장기손보	163,436	19.5	188,829	15.5	230,930	22.3	269,806	16.8
개인연금	9,995	25.3	12,853	28.6	17,801	38.5	24,281	36.4
퇴직보험	8,258	26.2	6,807	-17.6	9,530	40.0	3,583	-62.4
퇴직연금	2,133	61.0	3,322	55.7	9,016	171.4	22,143	145.6
합 계	339,818	14.9	374,954	10.3	437,599	16.7	498,561	13.9

주 :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5) 손해율

□ FY2009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0.7%p 증가한 75.5%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신계약 확대에 따른 경과보험료 증대로 상반기에는 하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지급보험금이 급증하면서 0.1%p 소폭 상승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운행 증가 및 겨울철 폭설로 인한 사고 발생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5.9%p 상승한 75.6%를 시현

□ FY2010에는 상해 및 질병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상해 및 질병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 이전에 건강한 우량 계약자들의 가입이 급증하고, 2009년 말 신종플루로 인한 손해율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손해율이 개선될 전망
 - 다만,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큰 폭의 손해율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성장성 회복으로 인한 보험료 규모 증대 및 정부의 손해율 안정화 대책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7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올해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인상하는 한편,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제도도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행차량 증가로 손해율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

<표 14>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장기손보	80.7	79.4	79.5	78.6
자동차	73.0	69.7	75.6	73.8
화재	44.2	39.7	31.2	41.2
해상	57.7	127.1	74.2	66.2
보증	19.5	48.9	49.9	35.0
특종	60.4	64.7	60.1	61.4
전체	74.2	74.8	75.5	75.0

주 : 1) 개인연금, 퇴직보험(퇴직연금 포함), 해외원보험, 해외수재보험을 제외함.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장기손해보험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IV. 보험회사 경영과제

1. 재무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

- 실물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보험회사들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함.
 -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 각국의 금융 및 재정 부문의 출구전략 시행 등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확보에 적극 대응해야할 것
- 잠재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뿐만 아니라 FY2011부터 EU식 지급여력제도보다 강화된 RBC제도³⁾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이 급격히 증대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 요구자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채 특성에 대응하는 장기채권 투자 비중을 높이고 금리연동형 및 투자형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시장·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파생상품,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하여 투자하는 것이 필요
 - 새롭게 추가된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불완전판매 예방 및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3)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자산운용리스크 및 보험리스크를 단순하게 측정하는 데 비해, RBC 제도에서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로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함.

- 금융위기 이후 보험수요 견인을 위한 영업실적 위주의 경영 전략과 독립채널에 대한 의존도 확대 등과 같은 요인이 결합되면서 보험산업의 소비자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금감원의 2009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대폭 증가(생명보험: 45.7%, 손해보험: 36.2%)함에 따라 평가등급이 대부분 하락
- 영업실적 위주의 경영전략, 모집종사자의 수당 위주 모집관행 등 불완전판매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
- FY2010에는 보장성보험 및 변액보험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이며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판매 규율을 강화하여 소비자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
- 사업비, 보장내역 등에 대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방지
- 소비자 중심의 판매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보험회사는 행위규범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판매자책임 명확화, 위반자 제재 및 관리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

2. 신규 영역 투자 및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전략 마련

- 전통형 보험업무 분야의 성장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존재하므로 자본시장에서 조달된 대규모 자본을 활용하여 성장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 전통형 보험영업 분야에서는 국내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성장률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사망보험: 2.9%, 자동차보험: 3.2%, 화재보험: 0.2%)
 - 이에 비해 저출산·고령화 요인으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투자성과와 연계된 변액보험 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변액연금보험: 9.2%)
 - 따라서 투자를 통해 성장 분야에서 요구되는 상품개발, 전문인력, 가격설정 등 관련 인프라를 선진보험회사 수준으로 제고
- 국내 시장에서는 보험시장의 성숙으로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마련함.
 - 거대한 잠재 수요가 있는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시장에서의 M&A를 통해 보험영업의 지역적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
- 경기회복의 가시화와 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본 유입에 따라 신규 영역 투자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보험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투자형 보험상품에 특화된 단종보험사, 퇴직연금 전문 보험사, 판매전문사 등 기능별로 전문화된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겸업화 환경에서 다른 업권에 대한 경쟁력 확보 가능

3.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1) 퇴직연금시장

- FY2009 퇴직연금시장은 계열사의 물량 유입의 효과로 큰 폭의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향후에는 계열사의 잠재유입 소진과 금융업권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지속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 퇴직연금시장은 시장선점으로 인한 경쟁력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

- 근퇴법 개정 예정 및 2011년 퇴직보험·신탁제도의 폐지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는 적절한 전략전환이 요구됨.
 - 퇴직보험·신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및 신규 가입이 증대될 예정이므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선제적인 영업 전략이 필요
 -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및 감독체계의 개선 노력도 요구

 - 근퇴법 개정을 통해 DC형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퇴직연금시장에서 DB형을 중심으로 성장한 보험회사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시장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제반 영향, 수요자의 니즈 변화 및 자산운용 능력의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부응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

2) 건강보험

- FY2009 건강보험 시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 이전 초회보험료 급증에 힘입어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계속보험료의 견조한 유입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 건강보험상품의 메리트 증가로 해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초회보험료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건강보험시장의 정체현상 시현
- 성장이 둔화되어 가는 반면 손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변화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어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 영리병원 도입, 원격진료 허용, 외국인환자 유치업,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체계 정비,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허용, U-헬스의 활성화 등 의료시장의 제도 및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의료시장의 제도 및 환경변화는 민영 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 손해율 및 신시장 개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시장 변화에 대응할 필요
 -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병원뿐만 아니라 비영리병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까지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의료시장의

환경변화를 상품구조에 반영할 필요

-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IT)과 생명공학(BT), 서비스 산업 등이 복합된 U-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며, 보험회사는 건강관리 중심의 유웰니스(U-Wellness) 분야를 건강보험과 연계시켜 사후적인 리스크관리 중심에서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로까지 역할을 확대

3)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시장은 정부의 차량관련 세제지원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
 - 자동차보험상품은 상품구조가 가장 단순하고 상품 간 동질성이 강하며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편
 -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에서 보험회사는 무리한 가격경쟁을 통해 수익극대화보다는 판매극대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영업수지가 지속적인 적자
- 자동차보험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무리한 가격경쟁에 앞서 손해율의 인하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의료수가제도의 개선, 보험사기 감소 및 요율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손해율을 감소시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바람직
- 우리나라 의료수가제도는 동일 의료행위라도 사고원인 및 진료비 지급주체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자동차보

험 손해율을 악화시킬 가능성

- 또한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율 악화문제가 심각한 상황

<부 록> 경제 및 보험 관련 주요지표 전망치

<부표 1>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

	2007	2008	2009	2010(F)
실질GDP	5.1	2.3	0.2	5.3
(명목GDP)	7.3	5.3	3.6	8.1
민간소비	5.1	1.3	0.2	4.5
건설투자	1.4	-2.8	4.4	1.4
설비투자	9.3	-1.0	-9.1	14.6
재화수출	11.9	4.6	0.0	11.8
재화수입	10.9	4.5	-7.9	15.2
실업률	3.2	3.2	3.6	3.5
(고용률)	59.8	59.5	58.6	58.9
소비자물가	2.5	4.6	2.8	3.1
경상수지(억달러)	58.8	-57.8	426.7	108.1
상품수지(억달러)	281.7	56.7	561.3	312.9
상품수출(억달러)	3,790.5	4,329.2	3,735.8	4,410.3
(%)	(14.2)	(14.2)	(-13.7)	(18.1)
상품수입(억달러)	3,508.8	4,272.5	3,174.6	4,097.4
(%)	(15.4)	(21.8)	(-25.7)	(29.1)
회사채(AA-)	5.7	7.0	5.8	5.5 [하반기 5.7]
국고채(3년)	5.2	5.3	4.0	4.5 [하반기 4.7]
원/달러(연평균)	929.2	1,099.5	1,276.4	1,094.8 [하반기 1,062.5]

<부표 2> 보험산업 주요 지표 전망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수입보험료(억원, 성장률)				
- 생명보험	750,956 (13.0%)	735,614 (-2.0)	771,481 (4.9)	808,158 (4.8)
- 손해보험	339,818 (14.9%)	374,953 (10.3)	437,599 (16.7)	498,561 (13.9)
- 전 체	1,090,774 (13.6%)	1,110,567 (1.8)	1,209,080 (8.9)	1,306,719 (8.1)
보험침투도(%) ¹⁾				
- 생명보험	8.3	7.2	7.1	6.9
- 손해보험	3.8	3.7	4.0	4.3
- 전 체	12.1	10.9	11.1	11.2
1인당보험료(천원)				
- 생명보험	1,550	1,513	1,583	1,654
- 손해보험	701	771	898	1,020
- 전 체	2,231	2,285	2,480	2,674
생손보 구성비(%)				
- 생명보험	68.8	66.2	63.8	61.8
- 손해보험	31.2	33.8	36.2	38.2

주 : 1) 보험침투도는 (총수입보험료/경상GDP×100)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부표 3>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보험종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생 명 보 험	개인보험	679,058	13.4	677,526	-0.2	696,487	2.8	736,139	5.7	
	- 생존	223,900	24.0	220,147	-1.7	237,396	7.8	254,915	7.4	
	- 사망	306,813	4.3	304,888	-0.6	298,954	-1.9	307,876	3.0	
	- 생사혼합	148,345	19.4	152,491	2.8	160,137	5.0	173,348	8.2	
	단체보험	71,898	9.7	58,087	-19.2	74,994	29.1	72,019	-4.0	
	- 일반단체	11,712	-5.4	10,713	-8.5	8,978	-16.2	8,331	-7.2	
	- 퇴직보험	49,606	0.3	36,160	-27.1	30,917	-14.5	13,246	-57.2	
	- 퇴직연금	10,580	186.0	11,214	6.0	35,099	213.0	50,442	43.7	
	합 계	750,956	13.0	735,614	-2.0	771,481	4.9	808,158	4.8	
	손 해 보 험	화 재	3,075	-1.8	2,835	-7.8	2,767	-2.4	2,772	0.2
해 상		6,518	3.1	8,507	30.5	7,707	-9.4	8,155	5.8	
자동차		108,095	12.0	109,371	1.2	112,215	2.6	115,806	3.2	
보 증		9,940	-13.0	11,529	16.0	12,532	8.7	13,735	9.6	
특 중		28,371	9.9	30,901	8.9	35,101	13.6	38,279	9.1	
장 기		163,436	19.5	188,828	15.5	230,930	22.3	269,806	16.8	
개 인		9,995	25.3	12,853	28.6	17,801	38.5	24,281	36.4	
퇴 직		보험	8,258	26.2	6,807	-17.6	9,530	40.0	3,583	-62.4
		연금	2,133	61.0	3,322	55.7	9,016	171.4	22,143	145.6
합 계		339,818	14.9	374,953	10.3	437,599	16.7	498,561	13.9	

주 : 1) 생명보험의 개인보험 각 종목은 변액보험을 포함함.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CEO Report 2010 - 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발행일	2010년 6월 일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쇄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77)로 하여 주십시오.